

A703

한국산 가는실해면과 (망각해면목)의 한국 2 미기록종에 대하여

이경진*, 심정자
한남대학교 생물학과

한국 제주도의 마라도와 가파도에서 SCUBA를 이용하여 채집된 해면을 동정·분류한 결과 가는실해면과(Irciniidae)의 2 종 *Ircinia irregularis* (Poléjaeff, 1884)와 *Sarcotragus muscarium* Schmidt, 1862가 한국 미기록종으로 밝혀져 보고하고자 한다. *I. irregularis*는 덩어리 형태로 성장하며 질감은 매우 질기고 많은 육질을 갖고 있다.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돌출되어 있다. 막에는 작은 모래와 다른해면의 골편이 섞여있다. 피층에 있는 섬유는 내층의 섬유보다 더 연한 색을 갖고며 내층의 섬유가 더 굵고 단순한 배열을 이룬다. 1차 섬유는 복잡한 그물모양을 형성하며, 내부에는 작은 모래와 다른해면의 골편이 들어 있다. 2차 섬유는 그물모양으로 1차 섬유와 연결되며, 연결부위에서 트럼펫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있다. filament는 해면체 전체에 분포하며 섬유로부터 기인한다. *S. muscarium*은 덩어리 형태로 성장하며 매우 폭신폭신하다. 표면과 막에는 모래나 다른 해면의 골편등의 이물질이 없으며, 많은 대공과 소공이 표면 전체에 흩어져 있다. 섬유는 관형태의 배열을 형성하여 1차 섬유와 2차 섬유의 구분이 매우 어렵고 가는실해면에 비해 매우 느슨한 섬유 배열을 갖는다. 섬유에는 모래나 다른 해면의 골편이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멍이 있고 투명하다. filament는 해면체 전체에 분포하며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다.

A704깃해면 속(*Mycale*)의 한국 2미기록종에 대하여김지영*, 심정자
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1999년 제주도와 소흑산도에서 SCUBA를 이용해 채집된 깃해면류의 표본들을 동정·분류한 결과 깃해면 속(*Mycale*)의 2종, *Mycale adhaerens parvasigma* Hoshino, 1981과 *Mycale obscura* (Carter, 1882)이 한국미기록종으로 밝혀져 보고하고자 한다. *M. adhaerens parvasigma*은 덮어싸는 형태이고 골편다발이 가시처럼 돌출되어 있는 표면은 피층막으로 덮여 있으며, 소공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층의 골격구조는 주대골편인 준아령침상체의 망상배열, 미소골편인 큰이조상체는 꽃모양 배열을 형성한다. 내층은 준아령침상체가 섬유질과 함께 골편다발을 이루며 작은이조상체와 작은시그마체가 흩어져 있다. 질감은 비교적 질기고, 살아 있을 때 어두운 노랑색이다. *M. obscura*은 덮어싸는 형태로 표면은 비교적 매끈하며 물결모양의 기복을 형성하고 피층막으로 덮여있다. 원형의 대공이 균데균데 열리고 수많은 소공이 산재한다. 피층의 골격구조는 주대골편인 준아령침상체의 망상배열, 미소골편인 큰이조상체는 꽃모양 배열을 형성하고 큰시그마체가 드물게 있다. 내층은 준아령침상체가 섬유질과 함께 골편다발을 이루며 진구모양같은 작은이조상체와 작은시그마체는 흩어져 있다. 질감은 매우 부서지기 쉽고, 살아 있을 때 사파이어색이다.